

Jean-Michel Othoniel 개인전 Black Lotus

February, 2016 | 임지환

DECOJOURNAL

137

Editor 임지환 Cooperation 국제갤러리

Jean-Michel Othoniel 개인전

Black Lotus

~ '16.03.27
국제갤러리

국제갤러리는 2016년 첫 번째 전시로 2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프랑스 조각가 장-미셸 오토니엘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0년 이후 국제갤러리에서 6년만에 열리는 오토니엘의 개인전으로, 그의 대표적인 유리조각 작품은 물론 석판화 작품까지 작가의 폭넓은 예술세계를 반영하는 신작 10점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국제갤러리 개인전에서 장-미셸 오토니엘은 국제갤러리의 3관 공간을 그만의 정원으로 꾸밀 예정이다. 전시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그의 최신작들로 구성되어, 장식적인 아름다움보다 조형적인 요소가 더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공중에 설치되는 거울유리 작품 'Noeud bleu miroir'와 'Pink Lotus'는 기존 유리 작품들의 연장선에 위치한다. 거울유리로 제작된 유연한 매듭의 곡선들은 빛으로 인해 환상적인 느낌을 제공하는 동시에 관객의 상상력과 시각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동시에 이 작품들은 자연의 유기적인 곡선과 형태, 그리고 유리의 단단함이 만나 강직하면서도 섬세한 떨림을 내포하고 있다. 'Black Lotus'와 'Purple Lotus', 'Gold Lotus'는 식물에서 받은 영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조각작품들이다. 'Gold Lotus'는 이사벨라 스투어트 가드너 미술관의 정원에 설치되어 상단 꽃 부분이 바람에 돌아가는 '바람의 장미 La Rose des vents'와 맥을 같이한다. 바람이라는 자연적인 요소를 적극 개입시킴으로써 자연을 차용을 넘어 자연 안에 작품을 위치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료의 다양성도 심화되어 'Black Lotus'의 경우, 유리가 아닌 산화 처리된 알루미늄으로 주조되었다. 이를 통해 관객은 유리보다 단단하고 불투명한 재질이 주는 독특한 느낌을 감상할 수 있다. 석판화 'Black Lotus' 시리즈 5점은 제목처럼 검은 연꽃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본 모습을 제작한 작품으로, 작가가 국제갤러리 전시를 위해 일찍이 기획한 작업이다. 알루미늄, 거울유리, 석판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들로 작업한 이 작품들을 통해 개인의 내면에 잠재한 고통과 치유의 과정으로부터 자연과 역사의 균형으로 확장된 장-미셸 오토니엘의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다. 🌸

